문(文): 삶과 꿈 에세이

<일기, 3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321373 국어국문학과 김예슬

-들어가며-

욕심이 났다. 아직 같은 과 동기들 얼굴도 모르던 3월 초의 어느 날이었다. 호명되는 순서대로 강당 위로 올라와 상을 받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학기의 성과를 인정받는 '우수 소논문 당선'이 너무나도 욕심났다. 우수 소논문 당선자가 빛나 보였고, 그들이 하는 발표를 빠짐없이 받아적었다. 우수 소논문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으며 나의 소논문 방향을 적립했다. 에세이로 상을 받은 사람은 적었고, 시사점이 많은 내용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듯했다. 따라서 나의 소논문은 '시사점이 많은 교과서적인 주제와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중간고사와 여러 가지 과제들에 눌려 종강을 코앞에 두고야 주제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한 학기를 지내며 틈틈이 써둔 주제 후보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주제는 딱히 없었고, 시험공부만으로도 벅찼기에 가장 그럴싸한 주제를 선정하여 제출했다. 발표 당일, 다른 학우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를 들으며, 같은 수업을 듣고 저렇게나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음에 신기하였고, 한편으로는 그중에 나의 주제가 가장 학술적이고 '상을 주고 싶은' 주제이길 바랐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주제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선 누군가 해야 하는 이야기도 좋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주셨다. 물론 나 혼자에게만 주는 피드백인지,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한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선정한 주제부터 주제 선정 이유까지 소위 '배워온 대로' 발표한 나는 정곡이 찔리는 느낌이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주제'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다. 나의 '목표'를 재정비해야 했던 것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보단,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지내왔다. 성적을 잘 받고 생활기록부를 잘 채우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처럼 내 생활을 꾸며왔다. 소논문 주제 선정 역시 우수상을 받을만한 것으로 꾸며내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 외면하던 것을 지적당하고 나니, 나의 깨달음을 풀어내지 않고는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마감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주제부터 형식까지 모두 바꾸었다. 시간 내에 쓸 수 있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정말로 내가 정말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니 없는 시간도 내서 빨리 글을 완성하고 싶어졌다. 지금부터는 클라시쿠스 '문(文): 삶과 꿈'과 함께한 나의 한 학기를 돌아볼 예정이다. 클라시쿠스에서 활동한 내용을 통하여 얻은 가치를 제시한 뒤, 이전의 나의 생각과 클라시쿠스를 들은 뒤 변화한 내 생각을 비교하며 '문(文): 삶과 꿈'을 들은 나의 후기를 짧게 남길 것이다.

3월 2일 목요일. 아주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예슬로서의 첫째 날이었다. 10시 반에 첫 수업이었는데, 혹시라도 늦을까 계속 핸드폰에 학교 홈페이지의 지도를 틀어

열심히 다산관까지 올라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첫 수업 날, 교수님께선 모든 수업은 조별 평가 일명 팀 과제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셨고, 교수님께선 당신을 스스로 '독서 동아리의 회장'으로 비유하셨다. 독서의 방향만 제시하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바가 더 크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과 같이, 교수님께선 그저 우리가 책을 읽으며 집중하면 좋을 부분, 이면에 담긴 배경 설명을 주로 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셨다. 한편 꽤 많은 학생이 '팀 과제'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수강을 포기하였다. 나도 잠시 수강을 포기할까 고민하였지만, 나의 첫 대학 수업을 회피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다. 처음 조가 정해지고, 『라 만차의 기발한 신사 돈 끼호떼』(이하 돈 끼호떼)라는 책을 읽었다. 읽어야 할 양도 많고, 쓰여진 배경이 다른지라 내용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버거웠다. 하지만 팀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틈틈이 책을 읽었다. 한편으로는, 시간에 쫓기며 책의 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집중하며 읽지 않아서 책 읽는 것이 고되지만은 않았다. 사실 나는 책 읽기를 취미로 내세울 정도로 책을, 특히 소설을 좋아했다. 하지만 진로와 연관되지 않는 소설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담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다. 그에 따라 차츰 소설과 멀어졌고 한동안 내가 책을 좋아함을 잊고 살았었다. 그러나 팀을 위해서라도 착실히 책을 읽어야만 했다. 이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생겨도 폰 대신 책을 보며 시간을 틈틈이 활용했다. 그 결과 지금도 버스에서 폰을 보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져서 책을 읽거나 창 밖을 바라보며 뇌에 휴식 시간을 주고 있다. 덤으로 도파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아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자부심까지 얻게 되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첫 모임, 나는 "이것이 대학이구나!" 하고 느꼈다. 회의는 기대보다 수준이 높았고, 조원 모두 최선을 다해 회의를 준비해왔다. 대학교에서의 첫 팀 과제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논문을 포함한 학술정보를 많이 활용하여 어느정도 전문적으로 끝이 나서 정말로 고등학교 이상의 무언가를 배우러 온 기분이 들었다. 후에 우리 조가 유독 열심히 임한다고 다른 조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땐 노력이 인정받은 기분이라 뿌듯해지기도 하였다. 나는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른 학생들의 발표도 열심히 들었다.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돈 끼호떼』는 나 혼자의 시선보다 다채로웠다. 다른 조의 발표 중, 단순히 소설의 등장인물로서 '돈 끼호떼'와 '싼초'를 해석하는 것보다, 이들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발표는 특히 흥미로워서 기억에 남는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어쩌면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업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정하여 발표로 진행된 수업은 단순히 소설의 내용을 분석하고 끝나는 수업보다 다채로운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발표 과제의 양이 많다 보니, 다른 과제가 한두 개 추가되면 그만큼 부지런히 임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싫지 않았다. 단순히 같은 내용을 공부하며 지루하지만 바빠야만 했던 입시 공부와는 달리, 이곳의 과제는 새로운 배울 것을 제공하였기에 지루지 않게 바빴다. 매주 총 3시간의 수업에서는 늘 새로운 것을 배워갔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적립되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학생들의 발표 내용은 시험을 보지 않으니, 어렵고 생소한 분야를 접했을 땐 시험에 대한 압박보다 학습의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되었다. 동기나 친구들은 매주 논문을 찾아 읽고 시간을 내어 회의하며 밤을 새워 대본을 수정하는 일정이 버거워 보인다고 말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경험이 가치 있었고, 나도 약간은 바쁜 일상을 즐겼던 것 같다. 추가로 다른 과목에서 팀 과제가 생겼을 때, 매주 팀 과제를 수행한 입장에서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는데, 고학번의 선배들 사이에서 발목 잡지 않고 과제를 잘 수행한 것 같아서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체감하였다.

수업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금 말하고 싶다. 먼저 중간고사 범위인 『돈 끼호떼』에선 해당 작품이 최초의 근대 소설로서 갖는 의의와 특징,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 작가의 일생 등 작품 외부의 것들 위주로 설명해주셨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늘 학부생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셨다. 각자 읽고 느낀 총평과 관련해서는 피드백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틀에 갇히지 않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30여 명의 학부생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태도 또한 배울 수 있었다. 한 가지의 해석을 정답으로 두지 않으셨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작품의 매력은 확실히 집어주셨다. 덕분에 『돈 끼호떼』 속 액자 소설이 뜬금없다고 느끼지 않았고, '돈 끼호떼'의 만행(기사라고 착각하여 저지른 민폐와 사건들, 나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어서 만행이라고 칭하였다)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돈 끼호떼'의 이상을 이해하고, 꿈을 좇아 거침없이 나아가는 '돈 끼호떼'의 모습을 차츰 이해하며, 교수님께서 그에게 느끼는 매력을 나도 느끼게 되었다. 만약 '돈 끼호떼는 매력적이다.'라고 정답을 정해둔 채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지식은 쌓되,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나도 '돈 끼호떼'라는 매력적인 가상 인물과 함께 즐거움과 분노, 때때론 슬픔, 그리고 호기심을 느낀다. 내가 '돈 끼호떼'를 일차원적인 소설 캐릭터가 아닌 입체적인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 수업이 진행되었다. 난쏘공 수업은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었고, 책의 분량은 많이 줄어서 『돈 끼호떼』보다 부담이 적게 느끼었다. 난쏘공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 한국은 노동 문제가 많았는데,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암살까지 근현대사의 노동 사건들을 다루었다. 수업 중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내가 한국의 근현대사에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학창 시절 한국사 시험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느냐에 따라 나의 흥미가 좌우된 결과였다. 난쏘공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실에서 노동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았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노동자의 인권 신장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1970년대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정부와 싸웠을 때 쓰인 소설이 50년이 흐른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안타까웠다. 한 편에서는 노동자 인권 신장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 투쟁하는데, 그들의 투쟁은 바다를 향해 돌을 던지듯, 잠깐의 파동만 만들어내고 이내 잠잠해진다. 잔

인한 현실이었다. 많은 사람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관용과 이해, 배려가 사라지고 악의와 분쟁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평소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던 말이었는데, 난쏘공을 배우며 마음으로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최근 매체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든 약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 착취를 당해도,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도, 여성과 노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범죄의 표적이 되어도, 사람들은 동정과 공감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애초에 부당한 계약을 수락하였기에, 몸이 불편하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을 누리길 욕심내었기에,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2차 가해를 한다. 최근 어떤 대기업에서 공장 노동자가 노동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없이 해당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위로차 유족에게 보내었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정신적 치료 및 휴가를 주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지시하여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접한 사람 중, 극히 일부이겠으나(또한 그렇게 믿고 싶으나)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던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는 50년 전에 멈춰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으니, 발전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나도 미디어의 분위기에 따라 배려를 많이 잊고 살아왔다. 물론 피해자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금세 다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난쏘공을 배우고 나서는 이러한 노동 사건들이 마음 깊숙이 와닿는다. 세상을 약자가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었다. 그러면서 한동안 외면했던 꿈이 생각났다. 학창 시절 나는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약자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길 원했다. 울고 있는 약자에게 손을 내밀 뿐 아니라, 약한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항상 울고 있던 약자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내가 겪은 고뇌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마 70년대의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화시키고 싶어졌다. 최근의 나는 사회 인식 개선 운동에 서명과 공유 등으로나마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기부도 하고 있다. 불의를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 것이 이 수업에서 얻어가는 또 하나의 가치였다.

잠깐 난쏘공의 내용과 관련하여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학가 중 한 명이 시인 '윤동주'인데, 그는 평생의 라이벌이자 사촌인 '송몽규'와는 달리 적극적인 독립운동가로서 나서지 못하였다. 『윤동주의 문장』이라는 책의 엮은이 '임채성'씨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송몽규'의 삶과 대조하여 '윤동주'는 본인의 삶을 진심으로 더더욱 부끄럽게 여기며 성찰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내 마음 깊이 감동이 되어 붙는다. 그와 비슷한 울림을 난쏘공과 그 배경을 배우며 느꼈다. '윤동주'의 진심은 작품에 녹아 나와 현재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난쏘공을 집필한 '조세희' 작가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에 녹아 나왔기에, 이러한 울림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작가의 말 부분에서 철거민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 억지로 가족을 끌어내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러한 부조리를 세상에 알려서 바로잡고자 하는 작가의 진심이, 잊어버린 '작가'라는 꿈을 상기시키며 작품에 녹아들어 내 마음의 울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울림이 '약자가 안심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나의 잊어버린 꿈까지 상기시키며, 부조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두서없이 쓴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고전 소설을 읽으며, 나는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 입시 국어에 눌려 화자와 등장인물, 각종 소품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만 암기하였고, 수능에 필요하지 않은 비판적 사고는 힘을 잃어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누군가 정리해서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스스로 숨겨진 의미를 찾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다. 이번 학기 클라시쿠스 수업을 통해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인기 있는 소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혜와 울림이 담긴, 시대를 관통하여 사랑받는 고전 소설을 읽음으로써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와 그것을 알아채는 통찰력 또한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팀 과제를 통해서는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과 겉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을 무조건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많은 동기가 수강을 포기하는 가운데에도 나의 대학 첫걸음을 회피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팀 과제를 하며 어려운 일보단 팀원에게 도움을 받거나 서로 친해지는 등 직접 부딪쳐본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또한 팀 과제가 없었다면, 다른 수업에서 나는 또 재수강이라는 탈출구를 만들며 끊임없이 회피했을 것이다. 이로써 어려워 보이는 것은 무조건 회피하던 중고등학생 시절보단 조금은 성장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단순히 입체적인 캐릭터에 공감하며 매력을 느끼는 것 뿐 아니라, 작가의 진심이 녹아있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삶과 그의 가치관에 공감하고, 현실에 적용하여 타인, 특히 약자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에 기인한 올바른 지향과 열정은 언젠가 빛을 보리라 기대한다. 클라시쿠스 '문(文): 삶과 꿈'은 고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나의 미성숙함을 털어버리고 대학 생활과 수업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대학 수업을 넘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도 세울 수 있었기에 앞으로도 이 수업과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마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학기가 '문(文): 삶과 꿈'으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첫 수업이 클라시쿠스였는데, 마지막까지 작성 중인 과제도 클라시쿠스 수업이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이 클라시쿠스 수업이 나의 1학년 1학기를 안아주며 보호해준 기분이 들었다. 클라시쿠스 수업에서 배운 것은 지식의 영역도 많았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태도의 영역이 더 컸던 것으로 느껴졌다. 팀 과제든 소논문이든 시작할 땐 걱정을 한가득 안고 시작하였지만, 끝나고 돌아보니 걱정을 한가득 담

았던 바구니에는 추억과 성장이 한가득 담겨있었다. 행운이 닿는다면 이런 수업을 또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수업을 쉽게 찾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주었던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며 일기에 가까운, 느낀 점 많은 나의 에세이를 마무리한다.